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빠라스게비 수녀대순교자

마태오 제5주일

성 요한 수사, 성 시메온 수사,
성 파르테니오스 아르타의주교

제4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로마 10, 1-10 / 봉독서 154
- 복음경: 마태오 8, 28-9, 1 / 110, B 39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빠라스게비 수녀대순교자

우리 교회의 모든 성인의 기적은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표현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7월 26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빠라스게비 수녀 순교자(AD138~160)가 바로 부모의 정성어린 기도로 인한 '영광스러운' 결실입니다.

부모는 기도의 결실이었던 성녀를 신성한 선물로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양육하였고, 그리스도교 신

앙의 가르침으로 치장하고 무장하였으며, 매일 풍부한 성서 공부를 통해 진정한 선교사가 되게 준비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녀의 삶으로부터 온 것으로, 성녀는 깊은 신앙만이 아닌 행실로, 그리고 진실된 기도로, 그리스도인인 부모의 살아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신성한 은총 안에서 사람 창조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업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마귀의 존재



마귀는 하느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만 추구하는데, 그 대상은 인간들이고 그들을 하느님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지배해서 종으로 삼아 결국은 그들과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마귀가 바라는 유혹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회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조차 그 대상이 되는데 바로 세상의 지식과 권세 그리고 부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마치 하느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영적 말씀을 찾고 깨달아서 마음을 가꾸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세상 것만 추구하고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니 하느님의 존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의 욕심만 채워주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귀는 기뻐하며 그들의 욕구를 채워져서 잘못된 길로 자꾸 나아가게 한다.

마귀는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더불어 오는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여 하느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 그리고 하느님의 존재를 인간의 이기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존재로 만들어 진리의 하느님을 왜곡시켜 믿게 한다.

마귀는 영혼은 물론 육신도 병들게 만든다. 영혼의 고통은 곧 육체적으로도 나타나서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어 마귀가 뜻하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 고민, 갈등, 미움, 질투, 욕심 등이 심해져서 불면과 스트레스가 쌓

여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고 몸도 쇠약해져서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해를 입히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려고 시도한다. 세상적인 이기심으로 영적인 거룩함을 욕되게 만들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잘못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서 타락시킨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게을리할 때 언제나 마귀의 유혹이 따르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다. 우리는 기도와 회개를 끊임없이 하여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유혹을 바로 알아 차려서 물리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

죽음의 권세로 왕 노릇을 하는 사탄을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히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죽음을 물리치셨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탄의 권세를 결코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여 그의 품에서 영적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마귀가 더욱더 권세를 행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영광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 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독단적인 옛날 표지판

한 젊은이가 자기 성당의 신부가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질문하였다. “신부님, 제 친구 하나는 언제나, ‘너는 이것을 행해야 한다.’ 또는 ‘너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말을 듣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는 이런 명령은 너무 독단적이라는 겁니다.”

신부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얼마쯤 간 뒤, 차는 그들이 가고자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런데 신부님은 표지판을 무시하고는 다른 길로 들어섰다. 젊은이는 “신부님,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뒤에 있던 표지판을 잘못 지나쳤다고요.”라고 소리 질렀다. 이때 신부님은 차분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나도 표지판을 제대로 보았다네. 하지만 이 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독단적인 표지판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걸 듣기 싫단 말이네.” 젊은이는 피식 웃더니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위대한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1912-1977) 박사는 언젠가 말했다. “우주 안의 모든 것은 물리학의 법칙을 따른다. 만일 당신이 이 법칙들을 알고 따른다면, 우주도 당신을 더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다.”

똑같은 일이 인간의 영혼에게도 적용된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법칙들을 알고 따른다면, 삶은 우리에게 더 친절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듯이, “만일 그 밖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다시 사용 설명서를 읽도록 하라.” 하느님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계명들이 최고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 아타나시아



춘천 성 보리스 성당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7월 24일 축일을 맞이하는 춘천 성 보리스 성당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예레미야 신부님과 신자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여름 수련회

올해도 여름 수련회(English Camp)가 아래의 일정으로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 복지관에서 개최됩니다.

- 신데즈모스: 7월 26일(금)~28일(일),
- 초·중·고등부: 7월 29일(월)~8월 4일(일)
- 고등부: 8월 4일(일)~8월 6일(화)

‘주여,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여름 수련회가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그램과 영어 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적 신앙생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룩하고 성공적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 참여

지난 6월 24일~7월 6일까지 안토니오스 임중훈 신부와 요한 박인곤 보제는 NCCK에서 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여 러시아, 콘스탄티노플, 그리스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세계총대주교청을 방문하였고, 세계총대주교께서는 한국 정교회의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 겨울의 한국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영적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넘치는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할키 신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에서는 메테오라의 수도원을 방문하여 정교회의 수도영성에 대해 체험하고, 사도 바울로께서 말씀을 전파한 고린토와 아테네 아레오파고스를 함께 걸었고, 아테네 대주교청과 메소기아의 대주교를 방문하여 정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지난 7월 15일(월)에 안투사 윤시보 교우께서 노환으로 안식하였습니다. 안투사 교우는 인천 성당 초대 교우셨고, 성당 운영위원이신 안드레아 김낙환 교우의 모친이십니다. 안투사 교우의 영혼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여름 수련회

올해 여름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초·중·고등부: 7월 26일(금)~28일(일)

- 신데즈모스: 8월 15일(목)~17일(토)

영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각각 5만 원입니다.



주간 예식

- 7월 24일(수) ▷ 성 크리스티나 대순교자, 성 보리스 순교자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